1
2016

양양소식

Vol. 249

2016년 새해를 맞은 양양의 아침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군민들의 가정과 마을, 학교, 직장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COVER STORY

물치항 새해 일출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 249호

| 발행일 2016년 1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yangyangesm@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양양소식

Vol. 249

CONTENTS

희망양양

04 **테마스토리** 새해, 해가 밝았습니다
06 **양양사람** 웃어도 좋아, 행복하니까!
08 **양양 600년** ① 2016년은 양양 600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의기양양

10 **양양은 지금** 양양군, 2016년 새해 힘찬 출발
12 **이달의 군정소식**
16 **양양의 이모저모**
18 **의정소식** 양양군의회, 희망찬 2016년 새해 시작

오감양양

20 **맛 칼럼** 천신품목 작위에 오를 양양의 새해 음식을 기대하며
21 **장보러가자니** 연애공원
22 **오랍드리** 우리 동네에 '숲 유치원'이 있다구요?

열린양양

24 **정보꾸러미** 양양군 교류 기관 · 단체 할인정보
25 **일자리정보** 1월 추천 일자리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28 **공익광고** 양양군 SNS 채널을 소개합니다

새해,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 책임감으로 조금은 무거운 마음입니다. 올해는 원숭이의 해로, 원숭이는 재주도 많고 개구쟁이처럼 친근하고 재미있는 동물인데요. 우리도 원숭이의 해를 맞아서 개구쟁이처럼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더불어 기쁜 일을 생각하다보면 우리 마음도 한결 가볍고 즐거워질 테니까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그 곳.

바다, 산, 강 어디라도 양양이라면 만사형통!

새해 새다짐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 산, 강 어디라도 생명력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새해맞이 장소가 있습니다. 양양은 산과 바다에서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를 두루 품고 있는 곳입니다.
설악산을 올라 일출을 바라보며 사색의 시간을 통해 새해맞이 다짐을 해도 좋고, 해돋이 풍경이 장관인 낙산사 의상대를 비롯해 양양의 양양의 푸른 생명의 바다에서 새로운 기운을 듬뿍 받아도 좋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그 곳, 양양이라면 어디든 만사형통(萬事亨通)입니다.

설악산 대청봉

깊은 생각과 다짐을 다지기 위해 산행을 계획하신다면 단연 설악산 대청봉 등반과 일출을 추천합니다. 뚜벅뚜벅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내 딛는 산행과 설악의 최고봉에서 맞이하는 장쾌한 일출의 묘미를 만나 다짐을 새로이 하신다면, 산행을 하며 흘린 땀방울만큼 뜨겁게 차오르는 각오가 남다르겠지요. 평생에 한번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 설악산 대청봉 완주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은 2016년에는 양양 설악산 대청봉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항구의 새벽

바다와 명산의 일출은 언제나 기꺼운 느낌을 주지만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상은 또 다른 용기와 응원이 되곤 합니다. 밤새 바다를 누비며 만선의 기쁨으로 부려놓는 항구의 새벽은 그 어느 곳 못지않은 치열하고 뿌듯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든든한 응원의 소리를 들어도 힘이 날 겁니다.
양양의 항구마다 새벽이면 펄떡이는 생선보다 더 활기차고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며 종횡무진 하는 어부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되고 용기가 될 테니까요.

바다, 산,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희망은 붉은 해처럼 솟아오르고, 삶의 현장은 뜨겁고도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우리의 2016년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붉은 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웃음을 주면서 올 한해도 잘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가는 길에 같이 동행해 주실 거죠?

웃어도 좋아, 행복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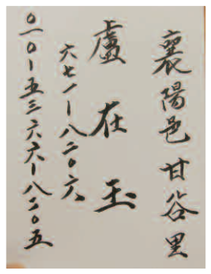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양양사람들

양양 사람 모두 활짝 웃는 2016년!
양양 사람들의 건강한 모습을 담는 '양양소식지'의 2016 새로운 코너,
양양사람에서는 새해 첫 달, 새 다짐, 새 각오로 새내기와 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씩씩하게 맞이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82세의 신임 감곡리노인회장

노재옥 (82세. 양양읍 감곡리노인회장)

44명의 감곡리 노인회원들 앞에서 지난 1월12일 연시(年時)총회 인사말로 새 다짐을 한 양양읍 감곡리노인회 신임회장 노재옥 회장은 80평생에 반장, 이장은 커녕 그 어떤 감투도 해본 적 없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올해 노인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82세에 신임 노인회장이 되면서 각오가 남다르다.
마을 노인회는 회원들의 공동의 놀이터이자 겨울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마을 사랑방인데, 일 년 이면 4백여만원의 운영비를 투명하게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인회장의 역할이자 임무다.
3남 1녀의 가장으로 성실히 살면서 평생 술을 하지 않으니, 69세에 운전면허를 따서 지금도 운전을 하며 동네친구들의 운전기사를 기꺼이 하고 있는 열혈 82세 신임노인회장은 직접 써서 전하는 명함처럼 아마도 바르고 든든하게 감곡리를 지켜줄 것 같다.
노인회원 가운데 아픈 회원이 있는데 얼른 쾌차하여 노인회에 잘 나오고, 가정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신임회장의 평범하면서도 건강한 삶이 빛난다.



귀농3년차 느타리 선도농가

전창수 (57세. 귀농3년차)

고향은 대구, 직장은 부천, 직업은 IT업계에서 일하던 전창수씨는 2014년 양양으로 귀농했다. 말 그대로 아무 연고도 없고, 해 본 적 없는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기 위해 양양으로 온 이유는 단지 공기 좋고 물 좋아서였다. 낯선 양양으로 와서 낯선 농사를 짓고 지난해 3,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니, 성공한 귀농인이다. 하지만 이처럼 수확을 내고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느타리버섯 작목반 회원들의 도움이 무척 컸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 그는 양양에 와서 작목반 회원 10여 명과 함께 공부하고 공동작업을 하며 도움을 받은 것이 정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올해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지난 해 보다 곱절의 매출을 목표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기술터득을 위해 타 지역 농가와의 교류를 통해서 더욱 발전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다문화가정의 고3 엄마, 고3병이 뭐에요?

레티하 (55세. 다문화이주여성)

한국에 온 지 19년, 아들 병구도 19살. 레티하는 고3 엄마이다. 그래서 올해는 분주하고도 바쁜 한해를 맞이했다.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올해도 잘 보 낼 수 있을 테니까.
레티하는 고향 베트남에서도 20살에 자동차 기술 공부를 하기 위해 러시아로 가서 5년 동안 공부를 했는가하면, 1997년에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한 적극적인 여성이다.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요리도 배우며 지금은 어엿한 베트남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 병구가 외국인 엄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공부를 잘 하지 못할까봐 늘 마음이 쓰였다.
하지만 엄마의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 덕분에 고3인 아들은 부반장까지 맡으면서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너무도 뿌듯하고 든든하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 엄마도 피해갈수 없는 고3 수험생 엄마로서의 부담은 크다. 그래도 그녀 특유의 긍정의 힘으로 올해도 파이팅이다.

내후년이면 마흔, 그러나 4개월차 새내기 공무원

김한수 (38세. 4개월차 새내기 공무원)

조직의 새내기치고는 완숙한 나이인 37세에 양양농업기술센터 축산9급 막내로 지난해에 입사한 김한수 씨는 오히려 죄송하다고 말한다. 많은 의미를 담은 죄송함이리라.
새내기 같지 않은 새내기, 하지만 나이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처음 업무를 맡았으니 다른 선배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늦깎이 공무원이라면 으레 공무만하다가 뒤늦게야 공무원이 되었나 싶었는데, 이미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전문인이다. 그는 군 제대 후에 8년 동안 30여 마리의 소를 키우던 축산인이었는데 2010년에 구제역으로 소를 모두 처분하고 다른 일들을 하다가 다시 한 번 축산영농의 꿈을 실현하기위해 축산직 공무원이 되었다. 축산농가의 현실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과 정책, 기술 등을 더욱 익혀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기위해 지금은 열심히 배우고 있다. 준비된 새내기, 김한수 씨의 건강한 계획과 꿈에 파이팅!

새내기 양양군청 소속 사이클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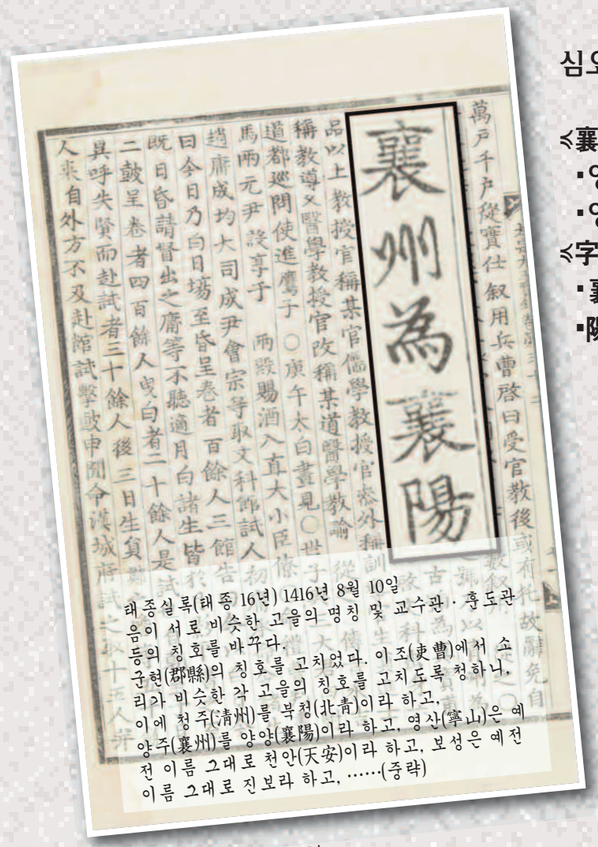
오제석 (19세. 양양군청 소속 사이클 선수)

올해 강원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양군청 사이클단에 입단한 사이클 일반부 새내기 오제석 선수. 고향 화천을 떠나 양양에서 지내면서 6명의 사이클부 선배들과 2016년 대회 출전 계획을 앞두고 매일 7시간 이상의 강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고등부 단체 스프린트 금메달, 개인독주경기 및 스프린트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유망주인데 올해부터는 일반부로 대회에 출전하게 돼 새로운 출발선에 선 셈이다.
올해 4월에 대통령기 사이클 대회를 비롯해 6월에 KBS배 사이클대회, 그리고 10월에 전국체육대회라는 3개의 큰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올 4월 대통령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자 각오다.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것이 목표인 오제석 선수의 첫 출발에 힘찬 기상이 실려 있다.

양양 600년 | ① 양양 600년의 의미

2016년은 양양 600년이 되는 해 입니다!

2016년(丙申年)은 양양이란 지명이 칭해진지 60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양양 600년이라는 뜻 깊은 한 해를 맞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이자 영광입니다. 우리는 늘 양양에 대해 오랜 선사문화를 간직한 전통문화의 고장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역사의 고장임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양 600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 하에 이 고장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襄州爲襄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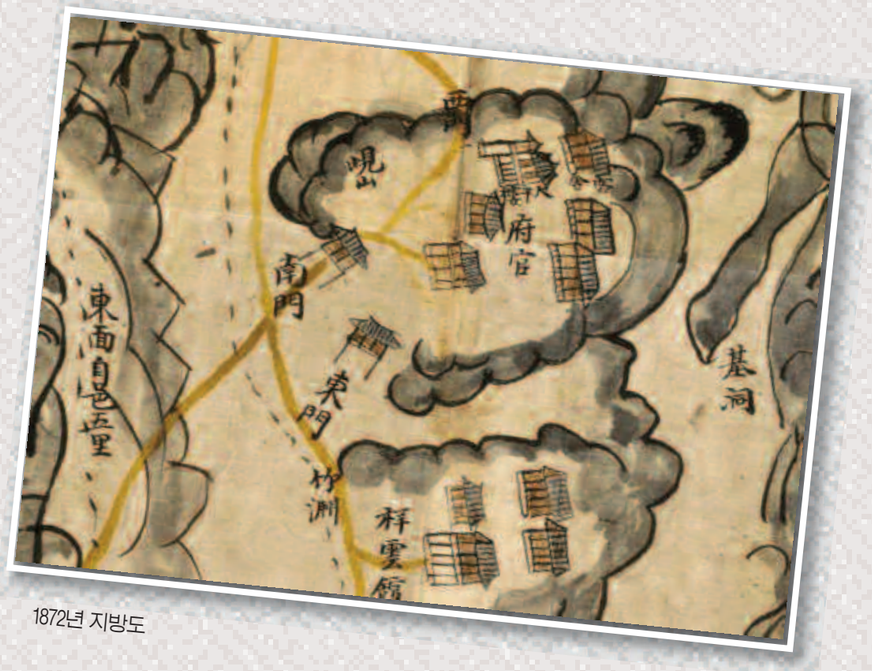
태종실록(태종 16년) 1416년 8월 10일
음이 서로 비슷한 고을의 명칭 및 교수관·훈도관 등의 칭호를 바꾸다.
군현(郡縣)의 칭호를 고치었다. 이조(吏曹)에서 소리가 비슷한 각 고을의 칭호를 고치도록 청하니, 이에 청주(淸州)를 북청(北靑)이라 하고, 양주(襄州)를 양양(襄陽)이라 하고, 영산(寧山)은 예전 이름 그대로 천안(天安)이라 하고, 보성은 예전 이름 그대로 진보라 하고, ……(중략)

태종실록 1416년 8월 10일

심오한 뜻이 담긴 양양의 의미

≪襄陽(양양)의 뜻 풀이≫
- 양양은 해 오름의 고장이다.
- 양양은 하늘이 돕는 고장이다.

≪字典的(자전적) 의미≫
- 襄 : 1. 돕다, 2. 오르다, 3. 이루다 등.
- 陽 : 1.볕, 양지, 2. 해, 태양, … 6. 하늘 등.



1872년 지방도

양양(襄陽)이라는 지명은 모방할 수 없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양양이 가진 지명의 의미는 조선 태종 16년(1416년)부터 함축되어 내려왔다. 한글로는 지명의 앞뒤의 글자가 같은 이름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양 뿐인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양양, 동해의 신을 모시는 해가 떠오르는 고을

조선 왕조(1392년 창건)는 양양을 특별히 관리해 왔다. 그 이유는 조선왕조 외친(外親)의 고장이기 때문이다. 태조 6년(1397년) 1월에 양주(襄州)를 임금의 외친본관이기 때문에 부(府)로 승격시켜 양주부(襄州府)라고 하였다. 태종 13년(1413년)에는 예에 따라 양주부를 양주도호부(襄州都護府)로 승격하였다.
태종 16년(1416년)에 양주(襄州)를 양양(襄陽)이라고 개칭하여,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선왕조에서 특별히 관리해 왔다.
왜 이곳을 양양이라는 지명으로 개칭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동해신묘와 조선왕조의 외친이라는 이유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한다. 동해의 신을 모시는 해가 떠오르는 고을로, 조선왕조의 태동이라는 의미로 양양이라는 명칭을 나라에서 정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풍수의 네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춘 곳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풍수에 대저 살 곳을 택할 때, 처음에는 지리(땅의 생김새와 형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생리(생활하는 습성), 인심(백성의 마음), 마지막으로 산수(산과 물)를 돌아본다.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살기 좋은 곳이 못된다. 지리가 아름답고 생리가 좋지 못 하면 오래 살 곳이 못 되며, 생리가 좋고 지리가 못하여도 역시 오래 살 곳이 못된다. 집터는 산소자리와는 달라서 물이 있어야 재산이 생긴다. 그러므로 물이 고여 있는 물가에는 부유한 집과 명촌 및 번성하는 마을이 많다. 비록 산중이라도 역시 시냇물이 모여 드는 곳이라야 대를 이어 오래도록 살터가 된다."고 하였다. 이곳이 바로 양양이다.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양양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는 새 천년을 향한 밝은 미래를 위해 양양 600년 기념공원 조성, 인물선양사업, 역사홍보 동영상 제작 등 29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양소식」이 양양 탄생 600주년을 맞아 양양문화원과 함께 '양양 600년' 연재를 시작합니다. 우리지역 곳곳에 서려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1872년 지방도

양양군, 2016년 새해 힘찬 출발

‘양양600년 저력을 디딤돌 삼아 새롭게 도약’
‘올해도 군민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새해 첫날 충혼탑 참배, 1월 4일 시무식, 2016년도 업무 시작

2016년도 양양군정이 힘차게 시작됐다.
1월 1일 오전 오전 6시 양양읍 조산리 동해신묘에서 새해 용왕제를 올리면서 한 해 동안 풍농풍어와 무재해, 군민행복시대 완성을 염원했다.
오전 10시에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이 새해 첫 일정으로 현산공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2016년도 양양군 시무식은 1월 4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진하 군수는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지나온 600년 양양의 저력을 디딤돌 삼아 3만 군민과 500여 공직자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양양의 역사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고속도로 시대를 대비해 개발 이용가능한 토지를 추가 조성하고 수도권 인구의 유입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6년도 양양군 새해 업무보고는 1월 6일부터 각 실과소를 순회하며 실시됐다. 2015년 성과, 올해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고 논의했으며 새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자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우리군은 올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및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 종합운동장 조성, 남대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군도 3 · 4호선 개설, 6개 읍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양양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전원 주거휴양단지 조성 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설명회

원주환경청과 KEI 현지실사 추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1월 8일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각종 공사 및 운영과 관련한 환경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에 대한 설명 및 기타 질의 답변이 이뤄졌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공사시 토사 복원계획', '낙뢰사고 예방대책', '산양 등 야생동물 회귀대책'등을 질문하고 이에 대해 김호열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용역사가 환경피해 저감방안 및 야생동물 보호 대책 등을 설명했다.
이어, 1월 13일과 14일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설치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우리군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1월 20일 완료됨에 따라, 27일까지 최종적으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2월중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해 3월까지 최종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군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의 상반기 착공을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산지법, 문화재법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색삭도추진단 삭도행정담당 033)670-2530

양양교~교육지원센터 500m 전선 지중화 추진

2016년 한전 신규사업 확정,
전선 · 통신선로 지중화 추진

양양교~양양교육지원센터간 전선지중화 사업이 '2016년도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지원사업'으로 확정돼 올해부터 추진된다.
이 지역은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군도 3호선에 포함된 구간으로 공중에 난립해있는 30여개의 한전주와 도로, 건물위에 어지러이 흩어져있는 전선, 통신선 등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사업구간 길이는 500m(양안 1000m)로 한전과 양양군이 각각 50%씩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같은 구간내 SK 등 통신사가 전신주에 부착한 통신케이블도 각 업체와 협약 체결을 통해 50대50 비율로 지중화가 추진된다.
우리군은 1월중 한국전력공사와 '양양 중심가로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수행에 따른 사업구간 및 내용, 사업비 분담, 추진절차 및 방법, 각종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 제반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17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구간은 올해 군도3호선 개통으로 44번 국도를 통해 양양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데다 올해 준공되는 양양소방서, 종합운동장과 바로 연결되어 시내권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지 경관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도시과 도시개발담당 033)670-2160

동서 · 동해고속도로 개통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 박차

현북 하조대 중광정지구 73세대 모집에
134가구 신청 인기

우리군이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오색 케이블카 설치 승인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개발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및 전원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전원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현북면 하조대 중광정지구를 비롯해 강현면 정암지구, 답리 예술인마을, 손양면 동호 지구 등이다.
이 중 하조대 중광정지구 전원마을은 구 공병단 훈련장부지 8만 1천여㎡에 160~180평형 전원주택지 73필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사전 입주예정자를 모집한 결과 73세대 모집에 134가구가 신청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강현면 정암지구는 그동안 목장용지 등으로 장기 대부해오던 정암리 일대의 군유지 7만 3천여㎡를 활용, 200평형 50~60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개발과 인구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현면 답리 3만여㎡에는 재중 동포 미술가 등 중국 예술인 20~30호가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 마을을 조성된다. 지난해 말 사업부지 매입을 마쳤으며, 올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 오픈할 예정이다.

전략사업과 전략기획담당 033)670-2123

군도 · 농어촌도로 확포장 25억원 투입

서면 장승교.손양면 여운포천 소교량
재가설도 추진

우리군이 올해 25억원을 투입해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4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한다.
양양읍 군행리와 성내리를 연결하는 군도3호선(국도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주요공정을 마쳤으며, 올해 11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70m 구간을 20m폭으로 확포장하여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이다.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가평리를 연결하는 군도4호선 도로개설사업도 9억 4,000만원을 투입해 800m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우선 추진한다. 군도4호선 사업에는 2019년까지 모두 134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남대천 남쪽 제방을 따라 4.6km(폭 15m) 확포장이 마무리되면 기존 남대천 둔치길과 연계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경관형 순환도로 개설이 가능해진다.
설악해변에서 강현면 용호리로 진입하는 강현207호와 기정~사천 간 농어촌도로(양양201호)에 대한 확포장 공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후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서면 장승교를 총 10억원을 들여 2차선, 30m의 교량으로 재가설하며, 40년이 된 노후교량으로 폭이 협소하고 수면에서부터의 높이가 낮아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에 취약한 손양면 여운포천 노후교량도 길이 15.5m, 폭 5m로 신설한다.

안전건설과 도로시설담당 033)670-2773, 하천관리담당 033)670-2752

〔문화관광〕

SNS 활성화로 군민과 소통한다

SNS 홍보기자단 구성, 카카오스토리 채널 개설 등 추진

우리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군민과의 살아있는 소통을 도모한다.
군은 SNS 정책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늘 2월 양양군 SNS 홍보기자단을 구성 · 운영할 계획이다.
SNS 홍보기자단은 지역의 관광과 문화, 행사, 맛집, 생활정보 등 유용한 콘텐츠를 취재 · 작성하여 양양군 공식 SNS 계정과 기자단 본인 SNS 계정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 · 확산하게 된다. 채택된 우수한 콘텐츠에는 소정의 활동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군민들의 SN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개설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Kakao Talk)과 연계된 카카오스토리 운영을 통해 양양군민에게 실시간 군정소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양양군은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운영 중이며, 2012년 9월부터 운영된 페이스북은 3년 사이 15,700여명의 '좋아요' 수를 확보했다.
군은 SNS를 통해 지역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군정의 소통 창구로 SNS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033)670-2102

수동골 상여소리, 마을 장례를 전통방식으로 재현

삶에 대한 경외감과 죽음의 슬픔을 예술로 승화

지난 1월 20일(수) 오전 8시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에서는 현남면 수동골지역의 고유한 만가인 수동골 상여소리가 실제 장례에서 재현됐다.
수동골 상여소리 보존회 김백남 회원의 모친인 서병랑씨(향년 90세)의 장례를 수동골상여소리 보존회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하직소리, 운상하는 소리, 묘 다지는 소리를 전통방식 그대로 재현했다.
근래 보기 드물게 마을의 실제 장례에서 수동골 상여소리가 재현되자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상주와 가족의 애통함을 같이 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5호(2013.4.12일 지정)인 수동골 상여소리는 양양군 현남면 수동골 화상천 주위의 마을에서 불려지던 만가(輓歌)로 밀양두라는 상두계에 의해 전통장례식으로 치러지던 특유의 절차와 소리를 민요로 담아내고 있으며 지금도 행해지는 민속만가로 문화적 고유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의 길을 전통의 방식대로 재현함으로써 삶에 대한 경외감과 죽음의 슬픔을 예술로 승화한 점에서 높이 평가돼 2010년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해 대통령상인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남면 총무담당 033)670-2650

〔농수축산〕

양양군, 올해 해양수산분야 42개 사업 57억여원 투자

해양수산보조 9개 사업 2월 13일까지 신청 받아

우리군이 지속 성장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기반을 조성하고 어촌 · 어항과 연계한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분야에 42개 사업 57억여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는 수산자원회복 12개 사업 25억 9600만원, 어업경영개선과 어업인 자립기반조성 15개 사업 11억 1800만원, 어업기반확충 9개 사업 12억 600만원, 수산물가공유통분야와 해양환경보전 7개 사업 8억 1200만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어획소득 향상을 위한 수산자원의 증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산종묘방류와 씨뿌림 양식사업에 4억 9300만원,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어업경영개선과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유류절감 장비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6억 7800만원을 투자한다.
또 11억여원을 투입해 9개 어항에 대한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남애항 활어센터 시설개선과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해양 폐기물 정화와 해안림 복원 등 해양환경정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남대천 어도 2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내수면 향토어종 종묘생산과 치어방류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우리군은 해양수산사업 중 9개 보조사업(8억 6,335만원)의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을 위해 수산관련 기관이나 단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2월 13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담당 033)670-2740

양양군, 신소득작목 육성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한다

특용작물 재배, 식용곤충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 육성

우리군은 시장 경쟁력이 높은 오미자와 구기자, 산초, 연 등 특용작물을 전략작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부가가치를 높여가기로 했다.
먼저 특용작물 재배기반 조성을 위해 2억원(자부담 1억 포함)을 투입해 종구와 종묘를 비롯해 하우스시설, 관수장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특용작물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 중 자부담 능력이 있고, 향후 전업농으로 발전 가능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 재배면적 5ha 내에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지원사업으로 '오미자 지주재배' 대상농가도 모집한다. 신규 재배방식인 아치형과 Y자형 지주를 통해 오미자를 시범재배 할 희망 농가를 0.1ha이상 규모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음나무와 산나물, 곤드레 등 산채 유망작목 생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산촌마을의 소득작목 재배기반 조성을 위해 고사리, 눈개승마 등 종묘와 종근 보급한다.
아울러 굴뚝 없는 친환경산업으로 식용곤충사업을 선점,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개 농가에 메뚜기 종란과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먹이용 사료재배와 종란 채취 등 전문기술을 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특화사업담당 033)670-2369

양양의 이모저모

농한기 체조교실 운영

보건소에서는 농한기를 맞아 보건소 및 14개 마을에서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한다.

적십자 봉사원 희망나눔 감사의 시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양지구협의회는 지난 1월 12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적십자 봉사원 희망나눔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2016 여성회관 농한기 이동교육교실 운영

여성회관에서는 1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농한기 이동교육교실을 운영한다. 4개 읍면 111명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요가, 댄스스포츠, 노래교실을 진행한다.

양양새마을금고 소화기 기증

양양새마을금고는 양양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23일 소화기 30개를 기증했다. 더불어 양양119안전센터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소방 안전점검을 전개했다.

송이버섯전골 시 · 군 대표음식 금상 수상

지난 12월 22일 춘천에서 제1회 강원도 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송이버섯마을'(대표 김용월, 장성진)이 송이버섯전골을 출품하여 시군대표음식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양양군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사)양양군새마을회는 지난 12월 30일 낙산 에어포트콘도에서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양양문화원 연극반, 중국배경 연극 '하오마오' 초연

양양문화원 연극반은 중국관광객을 위해 중국 모택동에 얽힌 일화를 배경으로 연극 '하오마오'를 제작하여 지난 12월 27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초연했다.

2015년 우수경관주택 선정

우리군은 자연친화적인 우수경관주택 5동을 선정했다. 선정가구에는 동당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경관주택 인증서와 함께 아름다운 집 표찰이 전달됐다.

창의적 체험활동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1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8개 프로그램에 1,080명의 청소년이 참여중이다.

양양의 이모저모

정부포상 전수식

우리군은 지난 1월 7일 김환기 전 부군수에게 홍조근정훈장, 홍봉기 전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이정환 전 손양면장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영양플러스사업 영양교육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임신부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90명을 대상으로 1월 12일, 1월 14일 2회에 걸쳐 영양교육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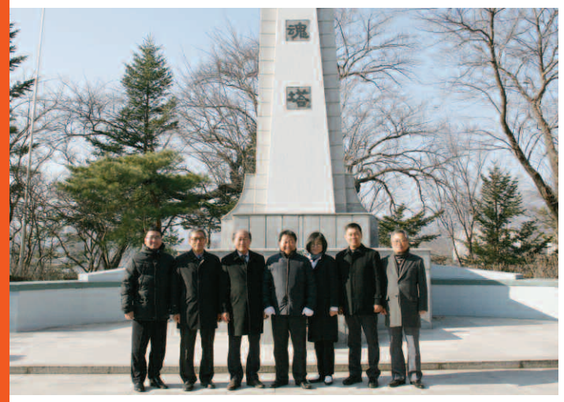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합의각서 체결

지난 12월 29일 우리군은 비행안전구역 관련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02기갑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양양군의회

양양군의회, 희망찬 2016년 새해 시작

'군민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사하는 의회 정치 실현'



양양군의회(의장 최홍규)가 2016년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했다.
1월 1일 오전 6시 양양읍 조산리 동해신묘에서 열린 새해 용왕제와 오전 10시 충혼탑 참배행사에 참석해 풍농풍어와 국태민안, 군정발전을 기원했다.
1월 4일 오전 10시 양양군의회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 한해 군민 대의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왕성히 수행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최홍규 의장은 신년사에서 "소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군민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사하는 의회정치를 실현하겠으며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양군의회, 충북 진천군의회와 자매결연

의정연수·교육 등 공동 진행, 민간교류 활성화

양양군의회(의장 최홍규)와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의장 신청섭)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양양군의회는 1월 13일 양양쏠비치호텔에서 의정, 경제, 문화 등 분야별 교류사업 활성화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북 진천군의회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자매결연은 신창섭 진천군의회 의장이 양양군의회에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해 10월 6일 양양군의회에서 먼저 진천군을 방문해 농다리와 혁신도시, 산수·신천산업단지, 국가대표 선수촌을 견학했다.
이어 진천군의회에서도 지난해 10월 29일 양양연어사업소와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등 사업장을 견학하면서 자매결연 추진을 구체화했다.
양 의회는 향후 의정연수와 교육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양양송이축제(10월)와 생거진천 농다리축제(5월) 등 양 자치단체 대표축제를 통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수학여행단과 사회·기관단체의 문화유적지 탐방을 도모하는 등 진정성 있는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Tel.033-670-2801

천신품목(薦新品目) 작위에 오를 양양의 새해 음식을 기대하며

귀하고 탐할 만한 것에는 '참', 쓸모없이 흔한 것에는 '개'를 붙이는 우리의 풍습

우리말에 음식이든 꽃이든 이름 앞의 첫 글자에 따라 쓸모 있거나, 볼품없는 값어치로 매겨지는 말이 있다. 이름 앞에 붙이는 '참'자와 '개'자이다. 흔하더라도 쓸모 있게 유용한 것에는 '참'자를 붙이고, 쓸모없이 흔하거나 볼품없는 것에는 '개'자를 붙이는 작명법이다. 한 예로 산채나물 중에서도 특유의 향이 으뜸이라 하여 여느 산채와 구별을 짓기 위해 '참'자를 붙여 '참나물'이라 하듯, 귀하고 탐할 만한 일품(一品)의 물산(物産)에는 반드시 '참'자를 붙였다. 참깨, 참기름, 참게, 참나무 등이 이와 같은 뜻을 따라 이름 앞에 '참'자를 얻어 쓰고 있다.

이와 반대로, 흔하고 볼품없는 것이 제 탓이 아닌데도, 흘깃한 미련조차 두지 않는 물산(物産)의 이름 앞에는 '개'자를 붙였다. 뿌리 내릴 한줌 땅만 있어도 금방 퍼지는 '개망초'가 대표적인 식물이다. '개망초'의 애초 이름은 '망국초', '망초'라 하였는데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의 농수산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들여왔던 철로의 침목에 망초(亡草) 씨앗이 함께 묻어서 들어와 퍼지기 시작한 외래식물이다. '망국초', '망초'라는 이름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1910년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이상한 풀이 전국에 퍼지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풀'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개망초는 망초보다 분홍색의 소담한 크기의 국화 꽃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망국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이름 앞에 '개'자를 붙이게 된 것이다. 사람의 이름 또한 조선시대에는 악귀를 쫓고, 무병장수 하라는 뜻에서 '개'자를 붙여 '개똥이'같은 천한 이름으로 짓기도 했다. 이처럼 쓸모없이 흔한 것을 천대시 하고자 할 때 이름 앞에 '개'자를 붙였다.

굳이 이렇다 하여 '참'이라서 더 귀하고 유용한 것이 아니고, '개'라서 흔하고 볼품없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흔하면 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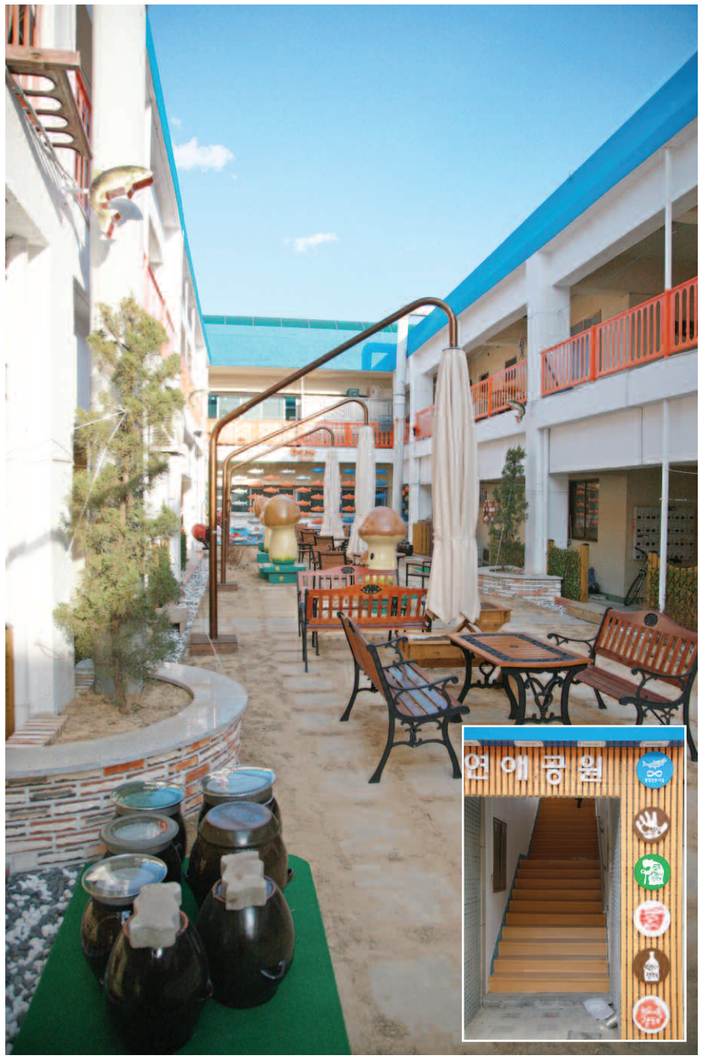
'참 음식'은 맛과 멋이 공존하는 음식

그렇게 있는 줄 여기고 있는 탓에 '흔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어, 유독 우리는 '개' 보다는 '참'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음식에서도 흔하고 볼품없는 식재료라 막연히 여기니, 그 타고난 본래의 맛까지 '개'의 개념인 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음식에서의 '참'이라 할 만한 음식이라면 무엇보다 맛있게 하려고 억지를 부린 음식 보다 정성만으로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음식이라야 한다. '참 음식'에는 맛뿐만 아니라 멋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음식에서 맛이란 혓 봉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것이고, 멋이란 그 음식을 더 맛있게 해주는 미안의 양념 같은 정서적인 것이다. '보기에도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이 있다. 일미(一味)의 음식이라도 여자들의 화장처럼 재색도 없고, 담아내는 그릇과 궁합도 서툴고, 여백의 미도 없이 그저 꽉 채우기만 하면 맛도 멋도 없는 그냥 음식일 뿐이다.

음식도 입으로만 먹는다면 그저 달고 쓰고 맵고 짠 것만 골라 삼키게 마련이다. 어느 음식이고 그 속사정 없는 음식이 없듯, 양양음식에서도 양양의 역사와 풍습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먹기 시작한 유래의 음식들이 있다. 실오라기 같은 사연이라도 알고 나면 그 음식의 맛과 향미가 달라지게 마련이듯, 양양의 음식에도 '참'일만한 음식이 다수 있다. 2016년 새로운 한 해의 첫 달을 맞은 양양의 음식 모두가 천신품목(天神品目)에 오르도록 기대해 본다.

황영철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시장에서 다리 쉼이 필요할 때



'연애공원'

양양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다 어디 쉴 데 없나 하는 생각이 들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시장상가 2층에 조성된 연애공원이다. '연어'를 '사랑'한다는 뜻을 지닌 연애공원은 올해 1월부터 문을 열었다.

상가 건물의 2층 지붕이자 상가연립주택의 가운데 공터였던 이곳이 연어 조형물로 아기자기하게 조성된 공원으로 바뀐 것이다.

시장 상인들의 보금자리와 호흡을 같이 하다보니 공원 귀퉁이의 장독대와 말린 나물, 곶감 등이 공원의 정겨움을 더해준다.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 공원 야외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싶다.

양양문화카페

커피&차 판매, 안마기, 수유실 갖춤
체험운영시간 10:00~18:00(사전예약)
※ 시간 조정 가능
체험종류 : 꽃누름, 보존화만들기, 캔들.디퓨저, 모과차 만들기 등
문　의 : 033-672-0691

밤에도 아름다운 연애공원

가족, 연인들과 야간 데이트 코스로 활용해보세요.

누군가는 말한다.
집을 나서는 것 자체가 '여행'이라고.
우리 오랍드리에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산수화가 펼쳐지니
양양에 산다는건 참 고마운 일이다.
양양여행자가 되어 오랍드리를 맘껏 누려보자.

우리 동네에 '숲 유치원'이 있다구요?

양양국유림관리소 어성전산림교육관

계곡이 깊고 산이 깊어 물 반, 고기 반이란 뜻을 가진 현북면 어성전(漁城田) 마을.
이 골짜기 마을에서 구불거리는 길을 조금 더 올라가면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어성전산림교육관이 있다. 어른들은 '그런데가 있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양양 어린이들 사이에선 인기만점 숲유치원으로 통한다. 양양을 비롯한 속초, 고성, 강릉에서 연간 7,5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찾는 이곳은 대도시 놀이공원 부럽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놀이공원인 셈이다. 이곳은 단지 어린이들만의 유치원이 아니다. 자연에 몸과 마음이 어려지는 우리 모두의 유치원이다.
어성전산림교육관에서는 매년 어린이 숲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방과 후 교실, 군 장병 프로그램, 노인 숲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층에게 맞춤 산림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일대에 펼쳐진 금강송에 마음을 뺏긴다.
쭉쭉 뻗은 시원하고도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금강송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경북 울진까지만 볼 수 있는 귀한 소나무다. 경복궁과 남대문을 짓는데 쓰이고,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의 관을 짜는데 쓰였다고 하니 그 가치는 더 말해 무엇하랴. 금강송 사이를 걷다보면 1904년에 태어난 이곳의 가장 오래된 금강송이 어서 오라 손짓한다.
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영원한 사랑의 징표인 연리지 나무가 있다. 나무에 담긴 메시지 때문일까. 어디에서 보아도 반갑다. 춥지만 걸을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에 계속 올라가다 보니 오른쪽으로 칡소폭포가 나온다. 칡소는 원래 우리나라의 토종소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소라 부르는 갈색 빛의 황소가 아닌 칡덩굴 같이 짙은 갈색과 검은색 무늬를 가진 얼룩소가 칡소이다. 옛날 어성전 골짜기에 살던 칡소가 이 폭포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빠져 죽은 후 칡소폭포라고 불린다는 옛말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숲 속을 걷다보면 산책로, 테마임도, 등산로가 곳곳에 있어 본인이 가진 시간과 상황에 맞추어 머무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어성전산림교육관 일대 숲속수련장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국민의 숲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테마임도를 비롯한 난이도별 다양한 등산코스와 나무터널로 그늘이 드리워진 산책임도, 야영장 등을 조성하여 산림휴양을 제공하고 있다. 최대 80명을 수용하는 숙박시설, 식당,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어 숲체험을 희망하는 학교, 기관 · 단체에서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위　　치 : 양양군 현북면 부연동길 1303(어성전리 산2)
이용시간 : 평일 9시~18시
프로그램 운영 : 매년 3월 ~ 11월
이용문의 :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경영계획팀)
☎033-670-3061~4

1. 금강송 숲
2. 테마임도
3. 연리지
4. 칡소폭포
5. 탄생의 숲에 있는 탄생나무

알아두면 도움되는
양양군 교류 기관 · 단체 할인정보

1. 경희의료원 대외협약기관 진료비 우대

▫ **우대 대상 :** 강원도 양양군민, 양양군 출신 향우
▫ **업무협약내용**
○ **협력분야**
– 건강정보, 건강상담 서비스, 진료절차 우대 제공
– 만성질환 예방 및 중증질환 치료 상담
○ **진료비 우대**(의료보험 환자만 적용)
– 선택진료비(특진비/외래.입원) 10% 감면
(1회 상한 50만원까지)
– 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 검진비 20% 감면
– 비보험 감면 : 경희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등
▫ **등록 안내** (우대혜택은 등록 후 적용, 소급 적용 불가)
○ **등록창구 :** 경희의료원 서관 1층 진료협력센터(700번)
○ **구비서류 :** 우대 대상 확인 가능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 의 :** 교류협력실 대외협력팀
(☎02-958-2997, 8 / Fax 02-958-2999)

2.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업무협약기관 진료 및 편의제공

▫ **우대 대상 :** 양양군민
▫ **진료 및 편의 제공 내용**
– 선택진료비의 20% 감면
– 비급여부분(MRI, SONO(초음파)의 10% 감면
– 종합검진비 10% 감면
– 입원시 병실 우선 배정 등 필요시 별도 협의
※ 국가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총무 부서장/담당 ☎031-910-7510 / 031-910-7515
– 원무 부서장/담당 ☎031-910-7453 / 031-910-7456

3. 자매도시 송파구 롯데월드 이용 할인

▫ **할인대상 :** 송파구 자매도시 지역주민 본인 및 동반 3인
▫ **이용방법 :** 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제시
▫ **우 대 율 :** 비수기 50%, 성수기 40%

(단위 : 원)

구 분		정상가	성수기		비수기	
			우대가	할인율	우대가	할인율
주간 (09:30~)	어른	48,000	28,800	40%	24,000	50%
	청소년	42,000	25,200		21,000	
	어린이	38,000	22,800		19,000	
야간 (16:00~)	어른	38,000	22,800		19,000	
	청소년	33,000	19,800		16,500	
	어린이	29,000	17,400		14,500	

※ 성수기 : 동절기 '15.12.13 ~ '16.2.28 / 하절기 '16.7.11 ~ 8.24

▫ 문 의 : 송파구청 총무과 대외능력팀 ☎02-2147-2141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 1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사업장명	근무지 주소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연락처
시원안전산업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1명	경리사무원	9시~18시(주5일)	월130만원	670-2289 일자리지원센터
		1명	용접원	9시~18시(주5일)	월150만원	
노인요양원 성산사랑마을	현남면 화상천로 608-11	1명	조리원	교대근무(협의)	월146만원	
		1명	영양사	9시~18시(주5일)	월172만원	
㈜삼구아이앤씨	손양면 고노동길 136 (을지인력개발원)	2명	기계,전기	2교대(격일근무)	월175만원	
		1명	미화원	8시30분~17시30분(협의)	월132만원	
양양수산	양양읍 포월새말길 23-35	1명	회계사무원	8시~18시(주6일)	월150만원	
		5명	생산직	8시~17시	시급6,030원	
㈜설악산그린푸드	양양읍 포월새말길 41-50 제2그린농공단지	1명	Haccp팀장	9시~18시(주5일)	월180만원	
		4명	생산직	9시~18시(주5일)	월140만원	
코레일 낙산연수원	강현면 동해대로 3457	1명	로비청소원	9시~18시(월6회휴무)	월130만원	
㈜스피어테크	양양읍 포월새말길 23-23	1명	화장품연구원	8시30분~17시30분(주5일)	연2,000만원	
현산레미콘	손양면 연어길 1-10	1명	경리사무원	9시분~18시(주6일) 토요일오전근무	월130만원	
설악송이포크	강현면 진미로54번길 42	1명	정육(발골)	8시30분~18시30분(주6일)	월150만원	
		2명	정육(정형)	8시30분~18시30분(주6일)	월130만원	
디모테오 어린이집	양양읍 군청길 17	1명	누리과정/보조교사	14시30분~18시30분 (주5일)	월75만원	
㈜대진환경개발	양양읍 포월새말길 23-13	1명	전기기사	9시~18시(주5일)	연2,500만원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033.670.2890~3 / FAX. 033.670.2456
양양군 여성회관 2층

사업장명	근무지 주소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연락처
(주)해송KNS	양양읍 포월새말길 농공단지내	1명	사무(회계)원	09:00~18:00(주5일)	월160만원	670-2890~3 새로일하기센터
태양전업사	양양읍 양양로250-21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주5일)	월127만원	
양양수산	양양읍 포월새말길 농공단지내	1명	사무(회계)원	08:00~18:00(주6일)	월150만원	
양양수산	양양읍 포월새말길 농공단지내	5명	생산직원	08:00~17:00(주6일)	시6,030원	
(주)삼진보안	손양면 공항로 양양국제공항	2명	양양공항보안검색 /특수경비	주.야 교대근무	월190만원	
코레일관광개발주식회사 낙산연수원	강현면 동해대로 952	1명	청소원(공용시설)	09:00~18:00(주6일)	월130만원	
한우랑송이랑	양양읍 거마천로 420-30	1명	주방보조원	11:00~20:00(주6일)	시6,030원	
꿈을주는 어린이집	손양면 무내미길	1명	보육교사	8:30~18:00(주5일)	월150만원	
이솝어린이집	양양읍 북문길 59-3	2명	보육교사	09:00~18:002개월마다 토요일당직근무	월156만원	
(주)설악산 그린푸드 (포월제2농공단지내)	양양읍 포월새말길 농공단지내	3명	생산직원	09:00~18:00(주5일)	월140만원	
베다니식품	서면 안터길 424-12	2명	생산직원	09:00~21:30 (2월말까지근무)	일5만원+야근수당	
오색그린야드호텔	서면 대청봉길	1명	룸메이드	09:00~18:00(주6일)	월150만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6년 1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안내

□ **납부기간 :** 2016. 1. 16 ~ 2. 1
□ **납세대상 :**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인 · 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
□ **세 율 :** 면허 종별에 따라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차등 부과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현금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부과팀)
☎033-670-2107

2016년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교실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16. 2. 15 ~ 2. 19(5일간)
□ **모집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 **교육기간 :** 2016. 3. 7 ~ 7. 1
□ **교육과정 :** 43개 과정(주간 26과목 / 야간 17과목)
※ 세부 교육과정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참조
(함께하는 양양 → 공지사항)
※ 교육과정은 강사채용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 강 료 :** 20,000원 ~ 30,000원(교육시간별 차등 납부)

수강신청	→	정원초과 과목추첨	→	수강료 입 금	→	폐강 및 개설확정	→	추가모집
2.15~2.19		2.23(화)		2.25일한		3.3일한		3.11까지

□ **접수장소 :** 여성회관 대회의실(2층)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
□ **문 의 :** 양양군 여성회관 ☎033-670-2777

2016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16. 2. 1 ~ 2. 25
□ **사업대상**
– 양양군에 소재한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건축물대장 등재)
– 보관중인 슬레이트 수거 처리
□ **지원내용**
– 최대지원액 : 동당 3,360천원(지붕면적 148.7㎡ 규모)
– 지원금액 이상 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초과비용은 소유자 자부담
□ **신청장소**
– 군 : 환경관리과 자원순환팀 – 읍면 : 총무담당 및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서 비치
□ **문 의 :** 양양군 환경관리과(자원순환) ☎033-670-2183

2016년 드림스타트 신규대상자 모집

□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 · 건강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 **모집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 0세~12세의 취약계층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 가정, 아동학대 및 성폭력피해 아동)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개인별 초기상담, 욕구조사, 사정을 거쳐 맞춤 서비스 설계 후 연간 서비스 제공
※ 2015년 : 가정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각종 예방접종 지원, 방문학습 지원, 독서지도, 영유아 프로그램 등 총 43개 프로그램 지원
□ **문 의 :**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드림청소년)
☎033-670-2810~2815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안내

※ 쓰레기는 해진 후 부터 아침 7시까지 배출해 주세요.

구 분	쓰레기 종류	수거일	배출방법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소각용)	월/수/금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흰색)에 담아 배출 봉투 : 5/10/20/30/50(ℓ)
생활 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소각용), 젖은 스티로폼, 벽지, 베개, 인형, 완구류, 카세트테이프	월/수/금	종량제봉투(흰색)에 담아 배출 봉투 : 5/10/20/30/50/75/100(ℓ)
재활용품	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비닐류, 스티로폼, 영농폐기물	화	종류별로 분리하여 투명비닐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검정봉투 사용금지
대형 폐기물	헌이불, 가전제품, 유모차, 의자, 각종가구류, 대형완구, 변기, 욕조, 매트리스, 가방, 거울, 액자, 고무통, 화분, 옥매트 등	화	스티커를 읍면사무소에서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수수료 납부
불연성 폐기물	유리, 도자기류, 화분, 화장품병, 타일, 소량의 집수리 잔재물 등 타지 않는 쓰레기	목	불연성 전용마대(붉은색)에 담아 배출 봉투 : 20/50/100(ℓ)

대형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 품목 ☎ 1599-0903

분 류		품 명	비 고
필수 품목	4대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LCD, LED, 프로젝션
	단일품목	가스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구형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배출 품목	필수품목을 제외한 소형 폐가전 (수량기준 5개이상 동시 배출시)	
병행품목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전기밥솥, 가습기, 휴대폰, 노트북, 믹서기, 전기히터 등 소형 폐가전	

□ **문 의 :**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033-671-1390

"미래를 향한 힘찬 도전,
대한민국 육군과 함께 하십시오!"

2016년 육군 민간부사관 남군 2기 모집

□ 접수기간 : 2016. 1. 18 ~ 2. 12
□ 선발인원 : 병과특기별 00명
□ 지원자격
○ 학력 :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016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연령/신분 :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27세 이하자(군 미필자) 예비역은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만1~만 3세까지 연장 적용(만28세~만30세)
○ 군 인사법상의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군 인사법 제10조 1, 2항)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3급 이상, 신체등위(신장·체중) 2급 이상자
□ 문 의 : 육군 대표전화 ☎ 1588-6953
육군모집 홈페이지 참조 (www.goarmy.mil.kr → 부사관)

내 손 안에 양양소식

양양군 SNS 채널을 소개합니다.

양양군에서 일어나는 깨알같은 정보를 SNS를 통해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지금 양양의 소식을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곳.

SNS (Social Network Service) 채널

facebook, cacaostory, opencast, homepage

카카오스토리 채널오픈!

페이스북

블로그

양양군 SNS채널 찾아오는 방법!

1. 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고 방문하기
2. 블로그 (http://blog.naver.com/likeyyang) ▶ 양양군 블로그에 이웃신청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 양양군 페이스북 좋아요!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likeyyang) ▶ 양양군 카카오스토리 구독하기
3. 양양군 SNS채널에 오시면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행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양양군